MEDIHEAL 과 함께하는 2021 동아스포츠대상

주최 : 메디힐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채널A 주관 : 스포츠동아 스포엑스컴

오늘, 대한민국에 하나뿐인 '명품 시상식'이 열립니다

2021년 대한민국 스포츠를 빛낸 '올해의 선수'는 누구일까요.

한국ABC 인증 유료·발행부수 4년 연속 1위의 스포츠동아가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남녀), 프로배구(남녀), 프로골프(남녀) 등 국내 5대 프로스포츠별로 '최고의 선수'를 뽑는 '2021 동아스포츠대상' 시상식을 6일 개최합니다. '동아스포츠대상'은 올해부터 '마스크 팩 신화'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뷰티 브랜드 메디힐과 손잡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메디힐과 함께하는 2021 동아스포츠대상'은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채널A가 공동 주최하며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직접투표로 '올해의 선수'를 선정합니다. 특히 올해는 미래의 스타를 꿈꾸며 어려운 여건에서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스포츠 꿈나무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메디힐 특별상'을 시상합니다.

종목별 '올해의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황금열쇠를, 메디힐 특별상에는 트로피와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합니다.

13회째를 맞은 동아스포츠대상은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해당 스포츠 연맹·협회의 운영 및 홍보 담당자로 구성된 대상 운영위원회가 종목별 '올해의 선수' 후보 및 투표인단을 정합니다. 올해는 투표인단 선수 293명이 종목별로 30~50명씩 직접 투표에 참여했고, 수상자는 시상식 현장에서 발표합니다.

시상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 완료 확인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스포츠계 관계자 중심으로 초청하여 간소하게 진행합니다.

선수가 직접 뽑은 '올해의 선수'
오전 11시 롯데호텔서울 2층

●일시 : 2021년 12월 6일(월) 오전 11시
●장소 : 롯데호텔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 (2호선 을지로입구역)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한국야구위원회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sportstoto korea 하이원리조트 JEONJU PAPER 1879

1위 ABC 공인 유료·발행부수 4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2021년 12월 6일 월요일
www.sportsdonga.com

전북 현대, 5년 연속 우승 '위대한 챔피언'

〈K리그1 최초·통산 9번째 우승〉

'우리가 역사를 썼다!' 전북이 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38라운드 제주와 홈경기에서 2-0으로 이겨 통산 9번째이자, 2017년부터 5년 연속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전주성에 터진 녹색 축포는 2010년대에 이어 2020년대에도 전북 왕조가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전주 |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제주와 최종전 한교원·송민규 릴레이골
김상식 감독, 부임 첫 해 우승 해피엔딩
관중석 이동국, 끝까지 서서 후배들 응원
대구 꺾은 울산, 3년 연속 아쉬운 준우승

K리그1(1부) 전북 현대가 통산 9번째(2009·2011·2014·2015·2017~2021년) 챔피언 대관식을 치렀다. 사상 초유의 리그 5연패까지 달성해 기쁨은 더욱 컸다. 최근 13시즌 동안 9개의 리그 우승트로피를 수집한 절대 왕조는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았다.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전북은 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38라운드 홈경기에서 제주 유나이티드를 2-0으로 꺾고 22승10무6패, 승점 76으로 또 한번 정상에 섰다. 후반 9분 한교원의 선제 결승골, 후반 28분 송민규의 추가골로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날 동시에 킥오프된 경기에서 2위 울산 현대도 대구FC를 2-0으로 제압하고 승점 74(21승11무6패)를 쌓았으나, 전북은 끝내 역전 우승을 허용하지 않았다. 실력으로 제주를 넘어 시상대에 올라 쌓이고 쌓인 '우승 DNA'를 입증했다.

전주과 울산 경기의 전반전이 끝났을 때만 해도 묘한 분위기가 흘렀다. 설영우~오세훈의 연속골로 울산은 2-0으로 리드한 반면, 전북은 제주와 0-0이었다. 울산이 이긴다는 전제 하에 제주가 이길 경우, 전북은 다 잡은 우승을 놓칠 수 있었다.

그러나 후반 초반 코너킥 상황에서 제주 골키퍼 이창근이 흘린 볼을 한교원이 놓치지 않고 밀어 넣으며 사실상 전북이 우승을 예약했고, 올 여름이적시장에서 전북에 입단한 송민규가 쿠니모토의 패스를 쐐기골로 연결하며 20억 원 몸값의 가치를 입증했다. 이로써 2019, 2020시즌에 이어 3년 연속 준우승에 그친 울산의 극심한 '전북 트라우마'도 지속되게 됐다.

물론 쉬운 경기는 아니었다. 비겨도 우승할 수 있는 상황은 오히려 큰 부담이었다. 전북 선수단은 3일부터 자발적으로 합숙을 하며 몸과 마음을 깨웠다. 아니나 다를까. "'전북이 (우리 탓에) 우승하지 못한다면 (미안해서) 어쩌냐'는 압박이 있었다. 우리도 최고 순위를 노릴 것"이라고 다짐한 남기일 감독의 제주는 치열하게 부딪혀왔다.

그러나 전북은 공간을 지배했고, 강한 압박을 가해 큰 위기를 맞지 않았다. 필요할 때 한 방씩 터트렸고, 상대가 장신 선수 2명을 투입한 후반 막판에는 브라질 공격수 구스타보를 수비라인 한복판으로 끌어내린 흥미로운 용병술로 대처하기도 했다.

최강희 전 감독과 조세 모라이스 전 감독(포르투갈)을 코치로 보좌했던 '초짜 사령탑' 김상식 감독은 울산의 강한 도전 속에 시즌 내내 마음고생이 컸지만,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로 활짝 웃었다. 전북은 다득점에서 앞선 1위로 시작한 파이널 라운드에서 4승1패를 거둬 우승 확률을 높였다. 이 기간 울산은 3승1무1패였다.

김 감독은 "좋은 경기로 특별한 날을 만들었다. 우린 더 강해질 것"이라며 활짝 웃었고, 경기 후 눈물까지 흘린 주장 홍정호도 "부담이 극심해 잠을 잘 수 없었다.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 의지가 강해 고비를 잘 이기며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미소를 보였다.

전북의 왕조 구축, 신화 창조에 결정적 역할을 한 '레전드' 이동국도 이날 현장을 찾아와 후배들을 격려했다. 경기를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한 홈 라커룸에 들어간 그의 메시지는 간단명료했다. "절대 스스로를 의심하지 말라. 전북은 늘 강하다"고 격려했고, 화려한 우승 세리머니까지 함께 하며 행복한 하루를 만끽했다.

▶ 관련기사 2·3·6면

전주 |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CJ CHEILJEDANG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착즙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즙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